

朝鮮朝 書堂의 書籍 刊行과 收藏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Books Published and Stored at
the Seodangs in the Joseon Dynasty

裴賢淑(Pae, Hyon-Suk) *

◁ 목 차 ▷

- | | |
|-------------------|-------------------|
| 1. 緒言 | 4.4 儒家類 |
| 2. 朝鮮時代 書堂의 性格 | 4.5 族譜類 |
| 3. 朝鮮時代 書堂 教育의 內容 | 5. 朝鮮時代 書堂刊本の 特徵 |
| 4. 朝鮮時代 書堂 刊行의 書籍 | 6. 朝鮮時代 書堂의 書籍 收藏 |
| 4.1 文集類 | 7. 結言 |
| 4.2 兵書類 | <참고문헌> |
| 4.3 史書類 | |

< 초 록 >

본고는 조선시대 서당에서 간행한 서적과 소장한 서적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書堂에서 서적을 소장하거나 간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본고에서는 서당에서의 서적 간행과 수장에 대해 고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간행한 서적은 모두 20종이 확인되었다. 주제는 문집 8종, 병서 1종, 역사서 2종, 유학서 5종, 족보 4종으로 문집, 유학서, 족보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지역으로는 경상도 15종, 충청도 2종, 강원도 1종으로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서당간본 가운데 팔목 할만한 점은 靑松의 梟江書堂에서 문집 3종과 유학서 5종, 도합 8종을 간행한 것이다. 이는 서당간본의 4割을 차지하는 수치로 서당간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간행시기로는 15세기에 1종, 16세기에 1종, 17세기에 1종, 18세기에 1종, 19세기말에 10종, 20세기초에 6종 간행되었다. 판종으로는 목판본 13종, 목활자본 7종인데, 문집은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고루 활용되었으나, 유가서적은 목판으로만 간행되었고, 족보는 모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전래되고 있는 서당간본이 대개 조선말기의 서적이어서 그 판목이 전래되는 것도 있다. 목판본 13종 가운데 8종의 판목이 전래되고 있는데 문집 2종, 역사 2종, 유학서 4종이다 6 종은 지금 韓國國學振興院에 소장되어 있고, 2종은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전반까지는 훈장의 개인장서를 학동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同族部落에서 血緣爲主의 書堂인 경우는 문고를 확인할 수 있다. 義城 龜蓮에서 강학에 힘쓴 任必大의 가문, 報恩 濯谷里에서 강학에 힘쓴 金相進의 가문을 들 수 있다. 이외

* 啓明文化大學 敎授. 書誌學專攻(hspae1977@empal.com)

접수일: 2006년 11월 6일 최초심사일: 2006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순조 7(1807)년 安邊府에 설립된 安邊鶴浦社와 尙州의 霞谷書堂에는 소규모의 문고가 있었다. 그러나 확인된 기록은 당시 서당간본이나 서당문고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要語 : 書堂, 書堂刊本, 書堂文庫, 梟江書堂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books published and stored at the seodangs(書堂), elementary schools in the Joseon Period. It has so far been controversial that the seodangs could publish and store books on their ow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llection of books published and stored at the seoda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wenty titles of books were published by the seodangs in the Joseon Period. Subjects covered collection of writings by Confucian scholars(8), Confucianism(5), genealogy(4), history(2), and military science(1). The places of publication were Kyongsang province(15), Chungcheong province(2) and Kang-won province(1). It is worth important to note that 8 titles (5 Confucianism and 3 Collection of Writings by Confucian Scholars) were published by Pukang seodang(梟江書堂) in Cheongsong(靑松) District. Therefore, this particular seodang's publication which amounted to 40% of all, hold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seodangs' publishing.

Books were engraved in the 15th century(1), 16th century(1), 17th century(1), 18th century(1), late 19th century(10) and early 20th century(6). 13 titles were published on wood blocks, and 7 titles with wooden movable types. While books on Confucianism were published only by wood blocks, all of the genealogy books were published with wooden movable types. The rest of them were published by both. Out of 13 titles published on wood blocks, wood blocks of 8 titles are still preserved. Wood blocks of 6 titles are stored in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韓國國學振興院), and 2 titles are kept by the descendants.

Libraries of seodangs came into existence in the 18th century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younger people in the families. Among them are the libraries of Im Pil-Dae(任必大)'s family in Gui-yeon(龜蓮) Eui-seong(義城), Kim Sang-jin(金相進)'s family in Tak-gok(濯谷) Po-eun(報恩). Also there were Hagpo-sa(鶴浦社) in Anpyon(安邊) established in 1807, and Hagog Seodang(霞谷書堂) in Sangju(尙州) which had libraries for students. But records show that only few seodangs had libraries in the Joseon Period.

Key words : seodang(書堂), library of seodang(書堂文庫), Pukang seodang(梟江書堂)

1. 緒 言

조선은 최고교육기관으로 成均館을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 아래에 京中에는 四學을 두고, 지방의 행정단위인 州, 府, 郡, 縣에는 鄉校를 두었다. 국가나 지방관청이 설립한 교육기관 외에 민간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書院과 書堂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官學이든 私學이든 중고등 교육기관은 국가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 발전과 쇠퇴의 길을 걸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官學인 成均館, 四學, 鄉校는 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반면 私學인 書院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부침이 있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대다수의 書院은 撤廢되고, 近代教育의 도입으로 成均館, 四學, 鄉校의 교육적 기능도 말살되었다. 그러나 書堂은 鄉村 民衆들을 敎育하는데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으므로 조선말을 지나 20세기 전반까지도 교육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총독부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었으나 3·1운동 직후는 오히려 증가되어 民族敎育機關으로서의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光復以後에는 향촌의 부족한 初等敎育의 수요를 보완하고, 6·25동란 이후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초등교육 이후의 일시적인 교육을 담당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는 敎材이다. 따라서 교육의 장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은 교재를 구비해야 한다. 敎材 이외에 讀書과 研究를 위한 서적도 필요한 것이다. 학습, 독서와 연구를 위한 서적을 마련하기 위해 成均館, 鄉校, 書院 등 상위의 교육기관에는 정책적으로 國家 또는 地方官廳의 支援를 받았고 또한 부분적이지만 서적을 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書堂에서 서적을 간행하거나 수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서당에서도 서적을 간행하거나 수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서당에서 간행하거나 수장한 서적과 그 특징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 朝鮮時代 書堂의 性格

우리나라 사설교육기관의 연원은 유구하다. 사설교육기관인 書堂의 기원은 미지수이지만 고려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종년간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徐兢은 어린이들이 鄉先生에게 배운다¹⁾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의 鄉先生은 일종의 書堂 訓長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士子들은 보통 8·9세 무렵부터 집안의 어른이나 외부에서 초빙한 선생에게 文字, 文章, 讀書과 作詩法을 배웠다. 父兄에게 배우는 경우는 家塾, 부형이 아닌 선생에게 배우는 경우는 書齋(書堂)라고 불렀다²⁾ 고려시대에는 일족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베풀던 폐쇄된 형태였다.

조선의 교육기관은 成均館, 鄉校, 四學, 書院, 書堂이 있었는데, 이들의 교육단계를 확연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선시대의 公敎育은 일단 文解者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四部學堂·鄉校→生員進士試→成均館→文科로 연결되는 官學 중심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³⁾으로 인식되고 있다. 成均館은 국가의 最高敎育機關으로 儒學敎育의 가장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鄉校, 四學, 書院은 成均館에 비해 아래 단계의 교육기관으로 中等敎育의 단계로 설정되고 있다. 書堂에 대해서는 初等敎育機關으로 보는 견해와 初中等敎育機關으로 보는 대립된 견해가 있다. 書堂은 대체로 문자와 유학의 기초단계를 교육한다고 보는 경우는 초등교육단계로 규정된다.⁴⁾ 이에 반해 文集에 나타난 士大夫의 修學課程을 분석하여 書堂을 교육수준상 반드시 鄉校와 四學의 하급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⁵⁾

書堂의 주요 목적이 童蒙子弟 및 鄉里의 年少兒童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書院

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서울: 白山資料院, 2000), 卷40. 儒學. 391.

2)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19.

3)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21-2.

4) 李鍾珪, 皮貞晚, 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5.

5) 李秉然, “麗末鮮初의 科業敎育 : 書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67(1975), 60.

과 다른 점은 祭享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⁶⁾ 書堂의 목적은 다양하였다. 文解敎育과 道德敎育에 치중한 敎化的 수준의 書堂은 초등敎育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科擧準備 敎育에 치중한 科業 수준의 書堂과 性理學 理論 탐구에 치중한 爲學的 수준의 書堂은 四部學堂이나 鄉校와 동열에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서당은 단순한 초등敎育기관이 아니라 초중등 단계의 敎育기관으로 볼 수 있다.

書堂은 향촌의 在地士民이 주도하여 면·동·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私學敎育機關으로 글방, 書房, 冊房, 書齋, 家塾, 書塾 등으로 불렸다. 일족의 자제에게만 한정되었던 書齋를 개방시켜 발전된 것이 선초의 書堂이라고 할 수 있다. 부형이 아닌 선생에게 배우는 書堂은 조선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書堂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않고 촌락 주민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었던 敎育기관이었다. 書堂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정부에서 書堂敎育을 장려한다는 포고를 하거나 유능한 敎官을 褒賞하거나 童蒙敎官으로 임명하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다.⁷⁾ 선초에는 官學 振興政策을 추진하면서 鄉校의 敎授와 訓導를 확보하기 위해 서당 훈장을 鄉校에 강제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세종초에 이르러 사적으로 書齋를 열어 敎育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상한다⁸⁾는 원칙이 설정됨으로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향촌의 在地士民이 주도하여 면·동·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私設敎育機關인 書堂은 16세기에서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⁹⁾ 16세기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과도 궤를 같이 하여 書堂 설립의 명분은 유학적 가치질서를 향촌사회에 扶植하는 것이었다. 이때에는 爲學的이고 科業을 대비하는 수준의 書堂을 官의 지원 없이 경내 백성들의 힘으로 설립하였다. 書堂 설립의 주도세력은 入仕 이전의 生員이나 進士가 주류였고, 이들은 유학을 향촌사회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¹⁰⁾

6)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25.

7) 李鍾珪, 皮貞晚, 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5.

8) 世宗實錄. 卽位年 11월 己酉. 권2.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68-69). 책2, 276 下左

9) 丁淳佑, 『18世紀 書堂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9.

17세기 교육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의 특징은 在地土族과 中央政府가 기존의 鄉校를 멀리하고 書堂을 鄉村敎化의 수단으로 주목하게 된 점이다. 土族들은 약화된 在地基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書堂을 중심으로 官權 및 外部士林과 연대를 시도하였다. 이에 수령을 書堂에 초청하여 講學을 여는 등 향촌기반 구축에 부심하였다. 관청도 鄉校를 통한 향촌사회 통제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書堂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¹¹⁾ 따라서 이 시기는 평민층의 주도하에 설립된 書堂을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書堂에 대한 지배력은 鄉權보다는 官權이 우세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는 書堂 설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하나가 同族部落이 書堂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된 현상이다. 이와 함께 書堂 설립의 목적도 講學 기능 외에 保族과 宜家 등 문중 중심의 성격을 띄어 혈연 위주의 폐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향촌교육에 대한 守衛의 관여도 경제적인 또는 실제적인 지원 대신 행정적인 감독과 정치적인 지도로 양상이 전환되었다. 지방의 열악한 경제력으로 구태여 門中中心의 書堂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²⁾ 18세기 書堂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직업적인 雇傭訓長의 출현이다.¹³⁾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중인 신분이거나 몰락한 양반들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門中合契나 一族合資로 설립한 書堂은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書堂을 설립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었다. 門約이나 洞約 하에 書堂이 설립되자 18세기 후반부터 書堂 설립자들은 그들의 신분유지를 위해 선조를 享祀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부터 書堂의 享祀는 선조 혹은 종족의 鼻祖에 한정되

10) 丁淳佑, “17世紀 書堂經營과 鄉村支配層의 動向,” 『교육이론』 제1권 제1호(서울대, 1986), 134.

11) 丁淳佑, “17世紀 書堂經營과 鄉村支配層의 動向,” 『교육이론』 제1권 제1호(서울대, 1986), 135.

12) 丁淳佑, 「18世紀 書堂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60.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25.

13)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26.

는 경향을 띄어 書堂이 家廟化되어 가고 있었다. 書堂에서의 享祀는 숙종 이후 꾸준히 강조된 書院抑制策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숙종년간 이후 書院立祀가 정책적으로 봉쇄당하자, 향촌민들이 書堂享祀를 그 대안으로 삼게 된 것이다.¹⁴⁾ 大院君이 書院을 撤廢 시켰을 때 유림들이 다양하게 대응하였는데, 書院을 書堂으로 변모시킨 요인¹⁵⁾이 되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또 하나의 특징은 中人層을 비롯한 非士族 중심의 書堂이 대두된 것이다. 소규모 자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書堂契를 조직함으로써 평민층이 書堂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평민중심의 새로운 書堂教材가 편찬되었고, 직업적 雇傭訓長이 등장하였다. 나아가 書堂訓長이 민란에 참여하기도 하여 중세적 신분제 사회가 해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書堂設立에 대한 基本資産, 施設, 敎授 등에 대한 법적인 국가의 통제가 없었다. 누구나 뜻이 있으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설립이나 운영체제가 다양하였다.

이 시기 書堂의 설립과 운영의 형태를 분류하면 대개 5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訓長自營書堂이다. 이는 지방 有志나 儒學者가 訓長이 되어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書堂이다. 다음으로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훈장을 초빙하여 운영의 경비를 부담하고 친척의 자제나 이웃집 자제들도 무료로 공부시키는 有志獨營書堂이다. 또 마을의 유지 몇 사람이 훈장을 초빙하여 자기 자제들을 공부시키는 有志組合書堂도 있었다. 때로는 마을 전체가 경비를 부담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자제를 교육시키는 村組合書堂도 있었고, 또 같은 중친끼리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가문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門中書堂도 있었다.¹⁶⁾ 組合書堂이나 門中書堂의

14) 丁淳佑, 「18世紀 書堂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75-76.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25.

15) 丁淳佑, 「18世紀 書堂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93.

16) 李鍾珪, 皮貞晚, 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학생 규모는 많은 경우 40명까지인 경우도 있었으나 보통 20 명 안팎이었다.¹⁷⁾

書堂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직 관리가 많았고, 訓長 은 生員, 進士試 에 합격한 儒生 혹은 庶孽이나 鄉吏 등이었다.¹⁸⁾ 書堂의 訓長이 교육하는 장소에 따라 座訓書堂과 番次書堂으로 구별된다. 座訓書堂은 일정한 장소에서 학동을 교육하는 것이고, 番次書堂은 훈장이 학생의 집을 전전하면서 교육하는 것이다. 座訓書堂은 마을에서 書堂建物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거나, 그 고장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書堂을 개설했을 때에 해당된다. 番次書堂은 독립된 書堂建物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 훈장을 초청하였으나 書堂을 유치할 집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 실시되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는 座訓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番次를 하는 書堂도 있었다. 番次 訓長의 食事, 清掃, 洗濯 등의 일은 番次하는 집에서 모두 담당하였다.¹⁹⁾

훈장에게 지불하는 學債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學債는 대개 일년 농사가 끝난 후에 지불하였다.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급하였는데, 學債는 대개 현물, 현금, 품 등으로 지불하였다. 學債로 지불하는 현물은 곡식과 의복이 중심이었다. 學債로 지불되는 곡식은 백미, 보리, 조, 옥수수, 콩 등이었으나 백미로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²⁰⁾ 番次書堂 훈장의 경우는 일년에 수업료로 租 1石, 被服費로 錢 1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²¹⁾

21-22.

17)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24.

18)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24.

19) 李鍾珪, 皮貞晚, 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10.

20) 李鍾珪, 皮貞晚, 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10.

21)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29.

3. 朝鮮時代 書堂 教育의 內容

일반적으로 書堂은 鄉校의 하위 기관으로, 書院은 鄉校와 수평관계 혹은 상위 기관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官學과 私學은 법적으로 어떤 연관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書堂도 여타 학교와 법적인 연계가 없었다. 敎化의 수준의 書堂, 科業 수준의 書堂, 爲學的 수준의 書堂이 혼재해 있어서, 書堂敎材는 당시 書堂의 수준과 성격의 차이만큼 다양한 것이었다. 따라서 書堂敎育은 아동의 문자해독에서부터 고차적인 성리학을 강론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고, 이에 書堂敎材의 종류도 다양각색이었다.

書堂敎育의 내용은 講讀, 製述, 習字의 세 가지였다. 講讀은 書堂敎育의 중심이었는데, 학동의 학습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교수하였다. 교수의 첫 단계로 먼저 單字의 訓音을 배우고 다음에 訓長의 導讀을 따라 음독을 하며 토를 익혔다. 다음에는 文意를 알고 음독과 훈독도 겸하여 익혔다. 배운 부분은 당일 熟讀하여 다음날 책을 덮은 채 암송했다. 이런 학습방법을 背講이라고 한다. 암송이 완전하면 새로운 단락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암송이 되지 않을 때는 벌을 받고 다시 背講해야만 하였다. 글을 배우는 도중에 5일, 10일 또는 15일마다 한번씩 처음부터 배운 곳까지 連誦했다. 한 책을 다 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고 한 질을 다 떼면 卷連誦이라 하여 전질을 암송했다.²²⁾ 製述은 五言絶句, 七言絶句, 四律, 古風, 十八句詩 및 作文이었는데, 訓長의 자질에 따라 製述이 제외된 곳도 있었다. 習字는 楷書를 위주로 하였으나 학습정도의 진전에 따라 行書와 草書를 익히기도 하였다.

선초에는 대개 8~9세에 書堂에 다니기 시작하여, 7~8년간 「千字文」을 통하여 정확한 漢字音を 습득한 후 「小學」과 「四書」까지 학습하였다. 15세기 이후에는 童蒙書籍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교재인 「訓蒙字會」, 「新增類合」, 「童蒙先習」, 「啓蒙篇」, 「明心寶鑑」, 「擊蒙要訣」 등도 이용되었다. 다음에 「史略」, 「通鑑

22) 李鍾珪·皮貞晩·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3집(1994), 15.

節要」를 통해 訓釋 위주의 공부를 한 다음 「小學」과 경서를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다.²³⁾ 하지만 조선 유림의 현실적인 1단계 목표는 生員進士試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生員進士試의 시험과목은 五經義, 四書疑, 賦, 古詩였으므로 과거준비에 치중한 서당의 강독내용은 이에 대비하는 공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書堂에 따라서는 性理學 서적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中人出身 訓長이 나타나면서 서당교재의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張混이 편찬한 「兒戲原覽」은 그 내용에 당시 성장한 중인신분의 脫明倫의 경향을 보이고, 神話와 民譚을 많이 소개하면서, 國俗을 강조하고 있다.²⁵⁾

교수의 방법에서 훈장은 轉學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轉學은 훈장이 학생의 학습진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학습진도가 높은 학생이 그 보다 낮은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교수방법이다. 훈장이 동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일종의 補助教師인 接長을 가르치고, 接長이 우수학동을 가르치며, 먼저 수학한 학동이 새로 수학하는 학동을 가르치는 학습방법이다. 이 전학의 방법은 훈장의 노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학생을 경쟁시키는 방법이었다.²⁶⁾

4. 朝鮮時代 書堂 刊行의 書籍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書堂教育에 있어서도 教材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書堂에서는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書堂은 규모가 크지 않았으므로 학생의 수가 적고 필요한 서적을 판각할 경비를 부담하기

23)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22.

24)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24.

25) 丁淳佑, “19세기 書堂 設立 과 鄉村社會 의動向,” 『한국의 사회와 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81.

26) 李鍾珪, 皮貞晩, 趙南國, “江原道 書堂敎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16.

어려웠기 때문에 書堂에서 자체의 서적을 간행할 업무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書堂에서 필요한 서적은 아마도 학생 자신이 마련해야 했을 것이며, 가문의 능력에 따라 간본이나 사본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인쇄본을 소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시 서적의 공급사정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여건하에서도 현직의 고위 관리에게는 서적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였다. 관직을 지낸 바 있는 사대부의 서재에는 풍부한 서적이 수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직 고위관리의 서재에서 수학한 학생은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학문적 수준이 높은 名儒의 서재일 경우는 더욱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학동의 교재를 지방의 가문에서 판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에 판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寺刹에 의뢰해 간행한 경우는 흔한 일로 보인다. 때로는 사찰의 유지비를 보충하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한 경우도 있었다.²⁷⁾ 지방관서 또는 사대부 가문에서도 사찰에 의뢰해 經部와 史部 서적을 개관한 후 판목을 사찰에 둔 경우도 있었다. 예로 南漢의 開元寺, 北漢의 太古寺, 星州의 雙溪寺에서 개관한 「千字文」,²⁸⁾ 昌平의 龍興寺에서 개관한 「明心寶鑑」,²⁹⁾ 南漢의 太古寺에서 개관한 「啓蒙編」,³⁰⁾ 南漢의 開元寺와 北漢의 太古寺에서 개관한 「通鑑節要」³¹⁾를 들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도 교재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필사해서 마련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書堂에서 전혀 서적을 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書堂은 초중등 교육기관이므로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千字文」, 「童蒙先習」, 「訓蒙字會」 등의 교재류를 간행했을 것 같으나 실은 이러한 교재류의 발간에 대한 증거는 아직 포착하지 못하였다. 확인된 書堂刊本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제는 文集類, 兵書

27)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399.

28) 奎章閣編, 鑄板考, 「韓國의 冊版目錄」上(서울: 保景文化社, 1995), 卷4. 子部上. 1015.

29) 奎章閣編, 鑄板考, 「韓國의 冊版目錄」上(서울: 保景文化社, 1995), 卷4. 子部上. 992.
徐有渠編, 林園十六志, 「韓國의 冊板目錄」上(서울: 保景文化社, 1995), 869.

30) 奎章閣編, 鑄板考, 「韓國의 冊版目錄」上(서울: 保景文化社, 1995), 卷4. 子部上. 999.

31) 奎章閣編, 鑄板考, 「韓國의 冊版目錄」上(서울: 保景文化社, 1995), 卷3. 史部. 962.

類, 史書類, 儒家類, 族譜類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인된 書堂刊本은 당시 간본의 일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文集類

조선시대 私家刊本의 특색은 가문을 빛내고 양반의 문벌과 혈통을 유지하며 특권을 누리하고자 文集과 族譜類를 많이 간행한 것이다. 당시 유행의 영향으로 書堂에서도 문집을 주로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된 書堂刊本의 문집은 8종 가운데 3종이 木活字本이고 5종이 木版本이다. 목활자본은 모두 고종년간의 간본으로 확인되었다.

泰齋先生集. 柳方善(朝鮮) 著. 木版本

[永川], [北習書堂], [文宗 卽位(1450)] 27×16.5 cm.

5卷1冊, 四周單邊, 半郭 16x12.8 cm, 有界, 13行20字,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序: 景泰元年庚午(1450)…徐居正.

卷末: 李甫欽, 鄭從韶跋.

內容: 卷1-4: 泰齋先生吟藁詩集. - 卷5: 泰齋先生文集.

印: 弘文館.

「泰齋先生集」은 柳方善(1388-1443)의 詩文으로 아들 允謙과 允庚이 편집하였다. 泰齋 柳方善은 태종 5(1405)년 司馬試에 합격한 뒤 成均館에서 공부했으며 법을 어겨 西原에 유배되었다가 다음해 永陽으로 移配되었다. 태종 15(1415)년 풀려나 原州로 갔으나 모함을 받아 다시 유배되었으며, 세종 9(1427)년에 석방되었다. 뒤에 遺逸로 천거되어 主簿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權近과 卞季良에게 글을 배워 文名을 떨쳤으며 특히 詩文에 뛰어났다. 易學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의 문하에서는 徐居正과 李甫欽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泰齋先生集」의 경우는 책판목록에도 永川 간본으로 수록된 바 있다. 170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古書冊板有處攷」에는 壯紙壹卷參貼 墨半丁이라 주기되어 있고,³²⁾ 178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古冊板有處攷」에는

‘壯紙壹卷參貼’이라 주기되어 있고,³³⁾ 또한 184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各道冊板目錄」에는 ‘容入紙四卷八張’이라 주기되어 있어³⁴⁾ 조선후기에는 그 존재가 명확했던 서적이다. 그러나 이들 책판목록에 原州 간본은 수록되지 않았다.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는 초간본에는 간행지와 간행자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순조 15(1815)년에 간행된 原州 松谷書院 중간본에 의하면 문종 즉위(1450)년에 永川의 北習書堂에서 간행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³⁵⁾ 이로서 규장각본 「泰齋先生集」은 후쇄본이지만 서당간본으로 추정된 최고본이다.

存齋先生文集. 李徽逸(朝鮮) 著, 李太宰(朝鮮) 編. 木板本.

[寧海], 溫泉書堂, [刊年未詳] 30.8×20 cm.

8卷3冊, 四周雙邊, 半郭 19.6×15.2 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花紋魚尾
序: 上之二十(1694)年…權璫.

跋: 崇禎甲申後丁卯(1687)仲秋日…任元壽.

「存齋先生文集」은 李徽逸(1619-1672)의 문집이다. 葛庵 李玄逸의 형으로 李滉-金誠一-張興孝-李時明으로 이어지는 退溪學統을 이어 받았다. 일찍부터 程朱의 성리학을 연구하여 통달하였으나,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는 성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병서인 「孫子」와 「吳子」를 읽어 奇正合變의 묘리를 연구하고 산천의 險易과 주변국가의 정황을 조사하여 효종의 북벌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효종이 승하한 뒤에는 쓸모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성리학을 연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뒤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영해의 仁山書院에 봉향되었다.

「存齋先生文集」에 대해 헌종 6(184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各道冊板目錄」에는 玄風에 ‘容入紙四卷’이라 주기되어 있다.³⁶⁾ 그러나 발문에서 府使

32) 「韓國의 冊板目錄」上(서울: 保景文化社, 1995), 295.

33)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799.

34)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1279.

35) 柳方善, 泰齋先生集. 影印本. 「韓國文集叢刊」(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0), 冊 8. 665.

36)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1283.

任元壽가 ‘영남은 비록 文獻之邦이라 하지만 이 고을은 東邊海上에 僻在해 있다’고 하였고, 막내가 葛庵이라 하였으므로 玄風은 일치되지 않는다. 정조 2(1778)년 10월에 寧海에서 李周遠이 「存齋先生文集」을 紹修書院에 보낸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先祖文集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⁷⁾ 소수서원의 서적목록인 「紹修書院冊錄」에는 「存齋集」아래에 ‘溫泉書堂에서 보내온 것으로 기록³⁸⁾되어 있음을 보아 동일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溫泉書堂에서 간행된 것이며, 정조 2(1778)년에 후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寧海의 「存齋集」판목에 대한 책판목록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은 계명대, 영남대, 국립,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영남대본에는 ‘黑牛[癸丑]仲冬自仁良刊所印送’이란 목기가 있다

晩洲先生文集. 權以復(朝鮮) 著. 木版本

靑松, 馬坪書堂, 憲宗 12(1846) 31×20.6 cm.

4卷2冊, 四周雙邊, 半郭 21.4×16 cm, 有界,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跋: 上之十二年丙午(1846) …李秉夏

「晩洲先生文集」은 權以復(1740-1819)의 문집이다. 그는 청송군 安德里에서 태어났다.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약관에 이미 문명이 널리 알려졌다. 정조 1(1777)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정조 5(1781)년 부친의 병으로 향리로 돌아왔다. 이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敬을 학문의 관건으로 생각하여 연구하였고, 음양술수, 병가, 산수 등에 이르기까지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정조의 구언에 따라 萬言疏를 올려 치국의 원리를 주달하기도 했다. 계명대, 국립,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계명대 소장본의 뒷표지 면지에 ‘歲赤馬[丙午]閏五月馬坪刊役所所送’이란 寄贈記가 있는데, 발문의 간지와 일치되므로 憲宗 12(1846)년 靑松의 馬坪書堂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邁莖文集. 徐活(朝鮮) 著. 木板本.

37) 「紹修書院雜錄」影印本, (榮州: 榮州市, 2005), 雲院雜錄, 490.

38) 「紹修書院冊錄」寫本, [英祖 38(11762)-正祖 9(1785)], 張10.

[靑松], [馬坪書堂], [哲宗年間] 32×21 cm.

6卷3冊, 四周雙邊, 半郭 20.2×15 cm,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卷末: 歲上章闡茂[庚戌(1850)]納卯節…李秉運 柳致明謹撰

「邁莖文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邁莖 徐活(1761-1838)의 시문집이다. 徐活은 川沙 金宗德의 문인이다. 간기가 없어 간행연대를 알 수 없으나 권말에 있는 李秉運과 柳致明의 발문에 의하여 철종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명대, 국립,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적 자체에는 刊行處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梟江書堂에 소장되어 있던 「邁莖文集」의 판목 86점이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되었다.³⁹⁾ 따라서 「邁莖文集」의 판목이 梟江書堂에 근래까지 소장되어 있던 것⁴⁰⁾으로 보아 馬坪書堂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醉吃集. 柳瀟(朝鮮) 著. 木活字本.

春川, 藥溪書堂, 高宗 19(1882) 29×19.2 cm.

5卷2冊, 四周單邊, 19.9×13.9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序: 崇禎紀元後四己亥(1839)…申在植.

刊記: 崇禎五壬午(1882)春川藥溪書堂活印.

「醉吃集」은 柳瀟(1564-1639)의 시문집으로 5대손 寅漢과 7대손 榮輔 등이 편집하여 春川의 藥溪書堂에서 고종 19(1882)년에 간행한 것이다. 柳瀟은 선조 30(159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선조 31(1598)년 승문원정자로 있을 때 영의정 柳成龍을 극도로 비판하였다. 선조 32(1599)년 翰林에 선발된 후 대사간과 부제학을 지내고 형조와 병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大北系의 관료로서 癸丑獄事에도 참여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광해군 15(1623)년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李爾瞻의 심복으로 지목받아 유배되었다. 그러던 그가 만년에는 李爾瞻을 지목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黨與를 심어 나라를 그르치는 원흉이라고 비평하자, 李廷龜는 柳瀟을 秦檜와 王倫을 목베자고 주청한 송나라의 胡銓에

39)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40) 梟江書堂을 관리하고 있는 宗孫 徐黈이 2004년 8월 15일 증언함.

비유하였다. 계명대, 국립, 규장각,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는데, 국립도서관에는 1912년, 1939년 간본으로 밝히고 있으나 고종 19(1882)년 간본이다.

老雲文集. 洪鑒(朝鮮) 著. 木活字本.

檜石書堂, 高宗 29(1892) 31.3×20.8 cm.

6卷3冊, 四周單邊, 半郭 22.4×16.3 cm, 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關逢涓灘(1884)…永嘉權璉夏.

跋: 宣城金輝濬.

玄默執徐[壬辰(1892)]…[洪]鍾善.

刊記: 歲壬辰(1892)…募活字繡印于檜石書堂閱月而功告訖.

「老雲文集」은 洪鑒(1804-1865)의 시문집이다. 고종 29(1892)년 문인 金輝濬과 從孫 學裕 등이 편집하여 檜石書堂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저자인 洪鑒은 定齋 柳致明의 문하생이었고, 紹修書院에서 독서하고, 후에 梨陽書堂을 짓고 論經하였다. 권두에 權璉夏의 서문, 권말에 金輝濬과 洪鍾善의 발문이 있다. 간기가 있어 간행년도와 간행자를 알 수 있는데, 檜石書堂은 그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修學地와 교류한 문사들을 고려할 때 경상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

石澗文集. 徐孝源(朝鮮) 著, 徐錫華(朝鮮) 編. 木板本.

[靑松], [梟江書堂], [光武年間] 21.5×20.7 cm.

8卷4冊, 四周雙邊, 半郭 19.7×15.3 cm,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跋: [徐]錫華, 三從弟[徐]孝信.

「石澗文集」은 조선 말기의 학자 石澗 徐孝源(1839-1897)의 시문집이다. 徐孝源은 柳致明의 문인이다. 아들 錫華가 8권 4책으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錫華와 孝信의 발문이 있다. 서적에는 刊行處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광무년간에 판각해서 梟江書堂에 수장되어 있던 「石澗文集」의 판목 135점도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되었다.⁴¹⁾ 계명대, 성균관대, 국립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

海菴先生文集. 崔永祿(朝鮮) 著. 木活字本.

高靈, 鰲巖書堂, 光武 9(1905), 28.9×20.1 cm.

6卷3冊, 四周單邊, 半郭 22×15.8 cm, 有界, 10行 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癸卯(1903)…黃蘭善

跋: 乙巳(1905)…崔羽東

刊記: 乙巳(1905)正月上元鰲巖書堂開刊.

崔永祿(1793-1871)의 문집 『海菴先生文集』은 高靈의 鰲巖書堂에서 광무 9(1905)년에 간행되었다. 당시 지명은 高靈이었으나 지금은 星州郡 수륜면 남은리로 추정된다. 崔永祿은 海菴 외에 鷺睡와 錦翁이란 호도 사용하였다. 崔永祿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鰲巖書院이 가까운 鷺睡浦에 살면서 오로지 학문연마에만 경주한 선비였다. 學規가 폐해지자 옛 學規를 부흥시키기 위해 철종 4(1853)년 寒岡 선생의 강학처인 檜淵書院에서 강회를 열었는데, 인근에서 모인 자 수백명이었다. 鰲巖書堂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書院이 書堂으로 개편된 것이다. 서문은 광무 7(1903)년 黃蘭善이 쓰고, 발문은 광무 9(1905)년에 從姪인 崔羽東이 썼다. 계명대, 성균관대, 국립,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성균관대와 국립도서관의 목록에는 1965년 간본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발문에 고종 8(1871)년 선생 사망 후 24년 갑오년이라 하였으므로 광무 9(1905)년 간본이다.

4.2 兵書類

書堂에서 의외로 兵家의 서적도 간행하였는데 유일하게 1종이 전래되고 있다. 서당간본 가운데 『泰齋集』 다음으로 오래된 서적이니, 곧 竹川書堂 간행의 『三略直解』이다.

三略直解. 黃石公(秦) 著, 劉寅(明) 解. 木板本.

竹川書堂, [宣祖 33(1600)], 30.7×20.5 cm.

3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8×16.9 cm, 有界, 12行19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41)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刊記：萬歷庚子孟夏竹川書堂新刊.

선조 33(1600)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지방의 書堂에서 병서를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나라 劉寅이 武經七書 가운데 가장 간결한 兵書인 「三略」을 주해한 책이다. 「三略直解」는 계명대, 산기문고,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다. 연세대 목록에는 간기가 없으나 동일 인본으로 추정된다. 계명대 소장본은 목판본 3권1책으로 “三略直解”란 卷頭書名과 卷末書名이 있지만 版心題는 “石公”이다. 상권의 卷頭書名은 “三略直解卷之上”이다. 하권의 卷末書名은 “黃石公三略直解終”이다. 白口와 黑口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어미도 불규칙하여 黑魚尾, 4瓣魚尾, 有紋魚尾 등이 뒤섞여 나타난다. 刊記에는 萬歷庚子로 오기되어 있지만 宣祖 33(1600)년 4월 竹川書堂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竹川書堂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4.3 史書類

조선시대 관료들은 관직에서 물러나면 향리로 돌아가 家塾이나 書齋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들 학자들은 저작도 많이 하였다. 그러므로 書堂에서 편찬하고 간행한 서적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한 2종의 歷史書籍은 서명에 반영된 경우이다. 木齋는 洪汝河(1621-1678)의 호인데, 咸寧縣에 木齋家塾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木齋 당시에 간행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들 역사서적은 家塾用으로 저작⁴²⁾된 敎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洪汝河(1621-1678)는 文科에 급제한 후 藝文館 檢閱, 待敎, 奉敎, 司諫院 正言에 이르렀으나 효종년간 高山察訪으로 좌천되었다. 효종 9(1658)년 鏡城判官이 되었으나 왕의 하문에 대한 疏文에 完南府院君 李厚源을 논박한 내용이 있어

42) 洪汝河, 『木齋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13, 附錄上, 行狀.

李萬烈, “17·1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韓國史研究』 10(1974. 4), 336-338.

黃潤으로 귀양갔고, 이듬해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숙종 즉위(1674) 후 服制問題로 宋時烈 등이 추방되자 다시 등용되어 兵曹 佐郎, 司諫院 司諫을 제수받았고, 곧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洪汝河는 道の 전체는 經에 있으나 道의 大用은 史에 있다고 피력하였다. 史는 褒貶勸懲의 책인데, 우리나라 史書에는 불만한 것이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이에 鄭麟趾의 「高麗史」를 산삭해서 「彙纂麗史」를 편찬하였고, 金富軾의 「三國史記」와 徐居正의 「東國通鑑」을 저본으로 현종 13(1672)년 編年體로 「東國通鑑提綱」을 저술하였다.

木齋家塾彙纂麗史. 洪汝河(朝鮮) 編. 木版本.

[尙州], 木齋家塾, [純祖年間] 31×21 cm.

48卷36冊, 四周雙邊, 半廓 20.5×16 cm, 有界, 10行 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鄭宗魯.

「彙纂麗史」는 계명대, 국립, 규장각,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 간행연도에 대해 규장각 목록에는 현종년간(1659-1674) 간본으로 추정되어 있고, 장서각에는 순조년간(1801-1834)으로 추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재학 鄭經世의 6대손으로 咸昌(문경시 영순면)의 외가에서 태어난 鄭宗魯(1738-1816)가 서문을 썼으므로 「彙纂麗史」는 정조말 순조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조년간에 편찬된 책판목록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그보다 늦은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기미상의 「冊板錄」에만 尙州에 ‘白紙四十一束五張半 在近岩書院⁴³⁾’이라 주기되어 있다.⁴⁴⁾ 이 책판은 지금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의 후손가에 수장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이다.

43) 近岩書院은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에 있는 서원으로, 현종 6(1665)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洪彦忠 李德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다. 숙종 19(1693)년에 金弘敏과 洪汝河를 추가로 배향하였으며, 정조 10(1786)년에 李楷, 李萬敷, 權相一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고종 5(1868)년 훼철되었다가, 1982년 9월 유림에 의해 복원되었다.

44) 「韓國의 冊板目錄」補遺 (서울: 保景文化社, 1995), 1471.

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 洪汝河(朝鮮) 編 木版本

[尙州], 木齋家塾, [正祖 10(1786)] 27.2×19 cm.

13卷7冊, 四周單邊, 半廓 21.4×14.2 cm,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上之十年丙午(1786)…安鼎福.

「東國通鑑提綱」은 영남대, 국립, 규장각,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 정조년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林園十六志」에는 尙州에 '尙州近嶺鄉賢祠藏印紙十一卷五張'이라 주기되어 있고,⁴⁵⁾ 「鏤板考」에는 尙州에 '尙州近嶺鄉賢祠藏印紙十一牒五張'이라 주기되어 있다.⁴⁶⁾ 순조 15(1815)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에는 咸昌에 '白紙十一束壹張 在尙州近嶺鄉賢祠'라 주기되어 있다.⁴⁷⁾ 「東國通鑑提綱」은 順菴 安鼎福이 정조 10(1786)년 서문을 썼으므로 木齋 사후 100년 이후의 간본으로 보인다. 이 책판은 지금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의 후손가에 수장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이다

이들 두 서적은 각판의 정교도, 목색의 윤기, 지질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정조중기에서 순조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서적은 후대에 書名 冒頭의 木齋家塾을 삭제하고 「彙纂麗史」, 「東國通鑑提綱」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 책 冒頭에는 木齋家塾이 부가되어 있고, 劣品の 紙質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먹[墨]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상태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4.4 儒家類

書堂에서 간행한 儒家의 서적은 5종이 확인되었다. 書堂은 초학자를 위한 교육기관이므로 初學者를 위한 교재 간행이 위주여야 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매우 심오한 哲理를 수록한 서적을 간행한 것이다. 5종 가운데 3종은 융희 3(1909)년

45)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861.

46)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964.

47)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1221.

靑松의 梟江書堂에서 동시에 간행된 것이다.

明誠集覽. 權濂(朝鮮) 編. 木板本.

[靑松], 馬坪書堂, 純祖 21(1821) 31.3×20.8 cm.

5卷2冊, 續集2卷, 圖, 四周雙邊, 半廓 21.8×16 cm, 有界, 10行21字,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戊寅(1758) 日南至厚庵老人書

跋: 上之十三年癸酉(1813) 端陽節也聞韶金士宏 跋.

刊記: 辛巳(1821) 七月日馬坪書堂開刊.

達城 徐氏들이 靑松 馬坪에 설립한 馬坪書堂에서 權濂(1701-1781)의 『明誠集覽』을 간행한 것이다. 權濂의 자는 希元, 호는 厚庵이며, 靑松 安德縣에서 태어나 金聖鐸 문하에서 수학하고 유학만 연구하였고, 만년에는 馬坪에 거주하였다.⁴⁸⁾ 서문은 厚庵老人이 썼는데, 바로 權濂의 自序이다. 내용은 孔門傳授의 旨訣인 明誠으로 顔子, 曾子와 朱子를 중심으로 저작한 것이다. 원집에는 明誠右圖, 明誠左圖와 明誠演圖를 수록하였는데, 후학의 학업에 지침이 될 성현의 언설을 분류해서 도해한 것이다. 明誠右圖는 愚에서 시작하여 仁으로 결론을 지었고, 明誠左圖는 魯에서 시작하여 道로 결론을 지었다. 속집에는 주자의 白鹿洞規를 부연 설명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영남대, 성균관대, 계명대, 국립,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容思集說. 徐活(朝鮮), 柳致明(朝鮮) 共編. 木板本.

[靑松], [馬坪書堂], [憲宗 9(1843)] 32×21 cm.

1冊(57張), 圖, 四周雙邊, 半郭 20.4×14.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跋: 癸卯(1843) …李秉夏

『容思集說』은 退溪學派의 川沙 金宗德의 문인인 邁埜 徐活(1761-1838)과 定齋 柳致明(1777-1861)이 九容과 九思에 관계된 글을 모아 해설한 책이다. 체

48) 權濂, 『厚庵集』 木版本 (靑松 日新堂, 1934), 卷8, 行狀

재는 먼저 九容인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을, 이어 九思인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를 다루고 끝에 圖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인간수양에 있어 내적인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인도함으로써 외적인 태도와 동작을 행동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인간완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계명대, 국립,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梟江書堂에 소장되어 있던 「容思集說」의 판목 15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되었다.⁴⁹⁾ 梟江書堂에 근래까지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馬坪書堂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約中篇. 李象靖(朝鮮) 編. 木板本.

靑松, 梟江書堂, 隆熙 3(1909). 32×21 cm.

1冊(46張), 四周雙邊, 半郭 19.5×15.4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跋: 柳致明.

刊記: 己酉(1909)季春日靑松梟江書堂藏板/聖學正路/朱節彙要 同時并刊.

「約中篇」은 大山 李象靖(1711-1781)이 心學의 중요한 과제를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 心學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저술로 '喜怒哀樂未發之中'을 비롯하여 모두 6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과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도서관 목록에는 헌종 15(1849)년 간본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대원군 서원철폐 이후에 간행되었으므로 융희 3(1909)년 간본이다. 梟江書堂에 소장되어 있던 판목 20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되었다.⁵⁰⁾

大山은 형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영조 16(1740)년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大山書堂을 짓고 제자 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정조년간에는 兵曹參知, 禮曹參議 등에 발탁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고종년간 吏曹判書에 追贈되었으며, 뒤에 高山書院에 봉안되었다. 시호는 文敬이다. 「退陶書節要」, 「心動靜圖」, 「理氣彙編」, 「敬齋箴集說」, 「心無出入說」, 「朱子語節要」, 「密庵先生年

49)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50)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譜」, 「心經講錄刊補」, 「延平答問續錄」, 「四禮常變通攷」 등을 편찬하였다.

영남 理學派의 主理的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방적인 主理論을 펴는 것을 반대하고, 理의 動靜과 理氣의 先後에 대한 의미를 해명하고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책이다. 大山은 李滉 이후 畿湖學派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嶺南學派에서 李滉을 계승한 鶴峰 金誠一, 敬堂 張興孝, 葛庵 李玄逸, 密庵 李栽, 大山 李象靖으로 계승된 영남 理學派의 중추적 인물이었다. 그의 학문은 아우인 光靖과 南漢朝를 통해 柳致明으로 이어지고, 다시 李震相에 이르러 唯理論으로 전개되었으며, 한말에 이르러서는 郭鍾錫으로 계승되었다.

聖學正路. 金宗德(朝鮮) 編. 木板本.

靑松, 鳧江書堂, 隆熙 3(1909). 31.9×21.1 cm.

1冊(47張), 四周雙邊, 半廓 20×15.4 cm, 有界, 10行18字, 注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壬寅(1782)…金宗德

印出記: 己酉(1909)季春日靑松鳧江書堂藏板 約中篇 朱節彙要 同時并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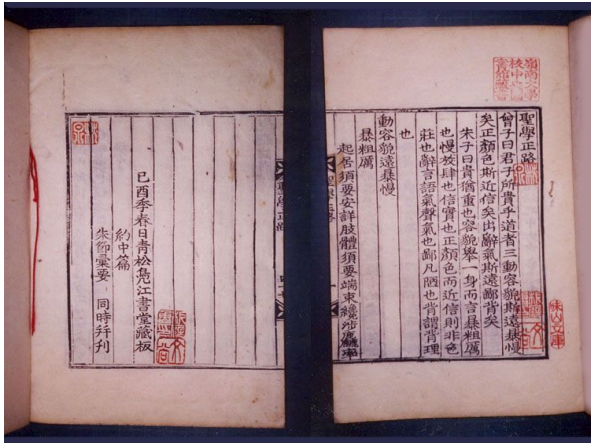
「聖學正路」는 川沙 金宗德(1724-1797)이 자신의 학문적 입각점을 밝힌 것이다. 초간본이 川沙 생존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널리 유포되지 못하여,⁵¹⁾ 융희 3(1909)년 靑松의 鳧江書堂에서 중간한 것이다. 영남대, 계명대, 국립,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 국립과 장서각목록에는 헌종 15(1849)년 간본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대원군 서원철폐 이후에 간행되었으므로 융희 3(1909)년 간본이다. 鳧江書堂에 수장되어 있던 판목 24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되었다.⁵²⁾

川沙는 大山 李象靖의 제자로 退溪學統을 계승한 학자이다. 川沙는 과거란 선비의 학문에 대한 뜻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관계진출을 배척하였다. 영조 34(1758)년 45세에 道學으로 道伯의 천거를 받았고, 정조 3(1779)년 66세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고, 정조 8(1782)년 71세에 僉知中樞府使에 제수되었으나 한번도 벼슬에 나가지는 않았다. 大山 문하에는 湖門三老라고

51) 金宗德, 「川沙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4), 附錄 卷1, 163.

52)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하여 川沙 金宗德, 后山 李宗洙, 東巖 柳長源 을 두드리진 제자로서 높인다⁵³⁾
 川沙의 학문을 계승한 제자들은 孺子亭及門錄⁵⁴⁾에 수록된 바 李野淳, 鄭必奎
 등 100여인에 달한다. 저서로는 「川沙集」, 「聖學入門」, 「禮門一統」, 「釋學正論」,
 「政本考證」, 「草廬問答」, 「禮書」 등이 있다.



<그림 1> 聖學正路 刊記面과 卷頭

川沙는 「聖學正路」로서 道學의 大綱領으로 삼고, 그 밖의 모든 선현의 가르침
 을 그 大綱領의 實踐條目으로 파악했다. 「論語」에 언급된 三貴, 四勿, 居處恭,
 三省의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서술방식은 본문을 쓰고, 그 본문에 대한 朱子의
 주석을 붙이고, 다음에 본문의 항목을 따로 제시하고, 그 항목과 관련된 경계의
 말을 덧붙였다.

朱節彙要. 柳致明(朝鮮) 編. 木板本.

靑松, 鳧江書堂, 隆熙 3(1909). 31.8×21.4 cm.

4卷2冊, 四周雙邊, 半郭 20×15.5 cm, 有界, 10行 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53) 川沙 金宗德의 文學과 思想(東方漢文學會, 2002. 4. 13 發表要旨), 12.

54) 金宗德의 門人錄이다. 孺子亭 은 의성 절곡면 사촌동에 있다

跋：柳廷鎬.

刊記：己酉(1909)季春日青松鳧江書堂藏板/約中篇/聖學正路 同時并刊.

「朱節彙要」는 定齋 柳致明(1777-1861)이 朱熹의 「朱子大全」의 내용을 요약하여 4권으로 편집한 책이다. 定齋는 「近思錄」의 편차를 모방하여 「朱子大全」에서 사상과 학문적인 면에 있어 중요한 구절만을 뽑아 편집하였다. 권1은 道體篇과 爲學大要篇, 권2는 窮理篇, 권3은 主敬篇, 권4는 力行篇과, 出處篇으로 구성하고, 다시 여러 항목으로 세분해서 서술하였다. 계명대, 성균관대, 국립,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는 현종 15(1849)년 간본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대원군 서원철폐 이후에 간행되었으므로 융희 3(1909)년 간본이다. 鳧江書堂에 소장되어 있던 판목 70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되었다.⁵⁵⁾

定齋는 李象靖의 外曾孫으로 李象靖의 문인인 南漢朝, 柳範休, 鄭宗魯, 李瑀 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退溪學統을 이어받아 李震相, 柳宗喬, 李敦禹, 權泳夏, 李錫永, 金興洛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철종 4(1853)년 이후 漢城左尹, 兵曹 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철종 6(1855)년 莊獻世子の 追尊을 청하는 상소를 하였다가 大司諫 朴來萬의 탄핵을 받고 祥原에 유배되었다. 이어 智島에 안치되었다가 그 해에 석방되었다. 철종 8(1857)년 제자들이 지어준 雷巖의 晚愚齋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그 뒤 철종 11(1860)년 同知春秋館事가 되고, 다음 해에 85세로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定齋文集」, 「禮疑叢話」, 「家禮輯解」, 「學記章句」, 「常變通攷」, 「大學童子問」, 「太極圖解」, 「大山實記」, 「知舊門人往復疏章」 등이 있다.

鳧江書堂에서 간행한 3종의 간본은 대체로 판각도 정밀하고 지질도 좋은 편이다. 간행년도에 대해 성균관대의 목록에만 융희 3(1909)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개 憲宗 15(1849)년에 간행된 것으로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로 鳧江書堂의 명칭문제이다. 鳧江書堂은 靑松 馬坪에 설립된 書堂으로 達城 徐氏들이 운영하였다. 초기에는 堂約書堂 또는 馬坪書堂으로 불렸는데 불이 나 타버렸으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장서도 많았다고 한다. 馬坪書堂이 소실

55)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된 후 재건된 서당이 梟江書堂이다. 梟江書堂⁵⁶⁾은 徐孝源(1839-1897) 과 사람이 주도하여 靑松府 府東面 池洞에 大山, 川沙, 定齋 세 선생을 모시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⁵⁷⁾ 영남의 유림이 조선 후기 嶺南學脈의 가장 우뚝한 봉우리인 大山, 川沙, 定齋를 함께 모시는 梟江書院을 세우려다가 大院君의 書院撤廢政策(1864)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書院을 건립하려던 기금으로 大山, 川沙, 定齋의 저술인 「約中篇」, 「聖學正路」, 「朱節彙要」를 동시에 간행한 것이다.⁵⁸⁾ 따라서 이들 서적의 간행은 서원설립이 좌절된 이후(1864)여야 한다.



<그림 2> 梟江書堂

- 56) 申相祺編, 「靑松郡誌」(靑松: 靑松郡誌出版所, 1938), 卷1. 張25b.
梟江書堂: 在府東面池洞大山李象靖川沙金宗德定齋柳致明擬奉之所石澗徐孝源與士林合謀勸設.
- 57) 徐錫華, 「淸石文集」石版本(19-), 卷14, 附錄 遺事, 張23b.
…梟江乃先府君之尊衛先賢而勸立者也…
…哲宗庚申三月二十六日舉府君于馬坪里第…甲子十月八日未時…正席扶臥而奄棄不肖享年六十五…
- 58) 徐錫華, 「淸石文集」石版本(19-), 卷14, 附錄 行狀, 遺事, 張14b, 23a.
…己酉刊行大山先生約中篇川沙聖學正路定齋朱節彙要于梟江書堂 梟江乃先公所勸而爲先賢尸祝計也…
…己酉詢謀同志繡棗大山先生約中篇川沙先生聖學正路定齋先生朱節彙要公布一世以效繼志報佛之誠…

둘째로 梟江書堂의 설립을 주도한 徐孝源의 생몰년과 이들 서적의 간행에 참여한⁵⁹⁾ 徐錫華(1860-1924)의 생몰년⁶⁰⁾과 대조하면 憲宗 15(1849)년에 간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융희 3(1909)년 간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靑松의 梟江書堂에서 간행한 서적은 退溪學統을 이어받은 大山, 川沙, 定齋의 道學을 밝힌 서적들이다. 2004년 후손 徐點은 梟江書堂을 府東面 池洞에서 길 건너 500m정도 떨어진 馬坪[상평]으로 이관하였다. 동시에 梟江書堂에 수장되어 있던 판목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시켰는데,⁶¹⁾ 이때 간기가 명기된 「約中篇」, 「聖學正路」, 「朱節彙要」와 함께 간기가 없는 「容思集說」, 「邁堊文集」, 「石澗文集」도 기탁시켰다. 여러 서적의 판목이 梟江書堂에 근래까지 수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간기가 없는 나머지 서적도 梟江書堂의 전신인 馬坪書堂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4.5 族譜類

조선시대에는 家門을 빛내고 兩班의 門閥과 血統을 유지하며 특권을 누리고자 文集과 族譜를 많이 간행한 것이 특징이다. 조상이나 스승의 시문을 수록한 사가관 文集은 自費 또는 費用을 거두어 값싸게 行下를 주는 정도로 간행했기 때문에 새김이 조잡하고 인쇄가 거칠어 책의 품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 59) 徐錫華, 「淸石文集」石版本(19-), 卷14, 附錄 行狀, 遺事, 張14b, 23a.
 …己酉刊行大山先生約中篇川沙聖學正路定齋朱節彙要于梟江書堂 梟江乃先公所廬而爲先賢尸祝計也…
 …己酉…繡棗大山先生約中篇川沙先生聖學正路定齋先生朱節彙要公布一世以效繼志報佛之誠…
- 60) 徐錫華, 「淸石文集」石版本(19-), 卷14, 附錄 行狀, 墓誌銘, 遺事, 張13a, 18a, 20a.
 …哲廟庚申三月二十六日公生于馬坪先第…甲子十月八日終于寢享年六十五…
 …睿陵庚申公生于馬坪里世第…享年六十五而終甲子十月上弦其日也…
 …哲宗庚申三月二十六日舉府君于馬坪里第…甲子十月八日未時…正席扶臥而奄棄不肖享年六十五…
- 61) 「2003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4), 123.
 梟江書堂을 관리하고 있는 宗孫 徐點이 2004년 8월 15일 증언함.

조선 후기에는 族譜와 世譜의 간행이 매우 성행되었던 바 이들 서적이 書堂에서 도 간행되었다. 현재 확인된 書堂刊本の 族譜와 世譜는 4종이다. 모두 조선 말기에 간행되었다. 族譜類는 충청도에서 2종, 경상도에서 2종 간행되었는데 모두 목활자본이다.

淸州慶氏族譜. 慶塏(朝鮮) [等編]. 木活字本.

延豐, 柳山書堂, 憲宗 10(1844) 36.5×24.2 cm.

4卷, 行狀, 合5冊, 四周雙邊, 半郭 27×18.4 cm, 有界, 橫 6行, 內向花紋魚尾.

序: 崇禎紀元後四甲辰(1844)李敏會.

跋: 崇禎紀元後四甲辰(1844)慶士夏.

刊記: 崇禎紀元後四甲辰(1844)孟秋忠淸道延豐柳山書堂族譜開刊.

「淸州慶氏族譜」는 慶塏가 중심이 되어 편찬해서 延豐(槐山)의 柳山書堂에서 憲宗 10(1844)년 木活字本로 간행하였다. 국립과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

恩津林氏世譜 ; 宜寧公派. [編者未詳]. 木活字本.

[居昌], 葛川書堂, 高宗 32(1895) 35.0×23.6 cm.

6卷6冊, 四周雙邊, 半郭 24.8×17.9 cm, 有界, 世別6段, 10行字數不定, 上下內向 2葉花紋魚尾.

序: 崇禎紀元後五周乙未(1895)上之三十二年張福樞.

刊記: 上之三十有二年乙未(1895)臘月上澣葛川書堂活印.

「恩津林氏世譜」는 居昌의 葛川書堂에서 高宗 32(1895)년에 木活字로 간행한 임씨의 세보이다. 국립과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다. 葛川書堂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 있던 서당이다. 임진왜란 이전 玉溪 盧禎(1518-1578)이 도내 유생과 함께 갈계동에 葛川書堂을 건립한 것이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다시 成彭年과 鄭惟明의 주도로 갈천의 서쪽 石潭의 아래에 있는 廻岩 위에 지었는데 화재로 다시 폐지되었다. 임란이 끝나자 고장의 선비들이 강론할 곳이 없음을 개탄하여 다시 건립하였는데, 화재로 또다시 폐지되었다. 이에 고종 14(1877)년에 개건하고 性齋 許傳이 고종 19(1882)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 서당은

경상남도유형문화재 295호로 지정되었다.

咸昌金氏族譜. 金斗漢(朝鮮) [等編]. 木活字本
沃川, 華山書堂, 光武 8(1904) 33×20.5 cm.
5卷6冊, 四周雙邊, 半郭 24.3×15.9 cm, 有界, 10行 22字, 內向花紋魚尾.
刊記: 崇禎五甲辰(1904)五月 日四刊于沃川華山書堂.

「咸昌金氏族譜」는 金斗漢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함창 김씨의 족보이다. 沃川의 華山書堂에서 光武 8(1904)년에 木活字本로 간행되었다.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

密城朴氏世譜. 朴致潤(朝鮮) [等編]. 木活字本
[淸道], 南岡書堂, 隆熙 2(1908) 32×21 cm.
10卷9冊, 四周單邊, 半郭 23.6×16.3 cm, 有界, 橫6行, 內向二葉花紋魚尾.
序: 戊申(1908)…朴致潤
刊記: 歲戊申(1908)六月 日南岡書堂印刊.

「密城朴氏世譜」는 朴致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해서 淸道の 南岡書堂에서 隆熙 2(1908)년에 木活字로 간행한 밀성 박씨의 족보이다. 도내 유생들이 숙종 20(1694)년에 豐角 南山에 서원을 설립하고, 迂拙齋 朴漢柱와 菊潭 朴壽春을 모셨다.⁶²⁾ 그런데 서당에서 간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니 이는 대원군의 서원 철폐 이후에 서당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

5. 朝鮮時代 書堂刊本の 特徵

書堂은 초중등교육기관이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수요가 많은 「千字文」, 「童蒙先習」, 「類合」, 「明心寶鑑」, 「訓蒙字會」 등의 교재류를 간행했을 것 같으나 이러한 교재류의 발간에 대한 증거는 아직 포착하지 못하였다. 의외로 보다 수준높은

62) 大邱府邑誌. 影印本. 「韓國地理誌叢書」慶尙道 1.(서울: 亞細亞文化社, 1987). 19.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규장각본 「泰齋先生集」은 서당간본으로 추정되는 最古本이다. 木齋家塾에서 편찬한 역사서적은 서당간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서당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朝鮮時代 書堂刊本

	書 名	刊地	刊行者	刊行年	版種	主題
01	泰齋先生集	永川	北習書堂	1450	木版本	文集
02	存齋先生文集	[寧海]	溫泉書堂	肅宗年間	木版本	文集
03	晚洲先生文集	靑松	馬坪書堂	1846	木版本	文集
04	邁菴文集*	[靑松]	[馬坪書堂]	哲宗年間	木版本	文集
05	醉吃集	春川	藥溪書堂	1882	木活字本	文集
06	老雲文集		檜石書堂	1892	木活字本	文集
07	石澗文集*	[靑松]	[梟江書堂]	高宗年間	木版本	文集
08	海菴先生文集	高靈	鰲巖書堂	1905	木活字本	文集
09	三略直解		竹川書堂	1600	木版本	兵書
10	木齋家塾彙纂麗史*	[尙州]	木齋家塾	純祖年間	木版本	歷史
11	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	[尙州]	木齋家塾	1786	木版本	歷史
12	明誠集覽	[靑松]	馬坪書堂	1821	木版本	儒書
13	容思集說*	[靑松]	[馬坪書堂]	1843	木版本	儒書
14	約中篇*	靑松	梟江書堂	1909	木版本	儒書
15	聖學正路*	靑松	梟江書堂	1909	木版本	儒書
16	朱節彙要*	靑松	梟江書堂	1909	木版本	儒書
17	淸州慶氏族譜	延豐	柳山書堂	1844	木活字本	族譜
18	恩津林氏世譜	[居昌]	葛川書堂	1895	木活字本	族譜
19	咸昌金氏族譜	沃川	華山書堂	1904	木活字本	族譜
20	密城朴氏世譜	[淸道]	南岡書堂	1908	木活字本	族譜

서명 뒤에 *가 있는 것은 板木이 傳來 되는 것임

조선시대 서당에서 간행된 서적은 모두 20종이 확인되었다. 주제는 문집 8종, 병서 1종, 역사서 2종, 유학서 5종, 족보 4종으로 문집, 유학서, 족보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서당에서 병서를 간행한 것이 이채롭다. 지역으로는 永川 1종, 寧海 1종, 靑松 8종, 春川 1종, 高靈 1종, 尙州 2종, 延豐 1종, 巨昌 1종, 沃川 1종, 淸道 1종, 미상 2종이다. 경상도 15종, 충청도 2종, 강원도 1종으로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2종의 역사서적은 조선시대에는 尙州 관할지역에서 판각되었으나 지금은 聞慶에 속한다. 서당간본 가운데 팔목할만한 점은 靑松의 馬坪書堂이 梟江書堂으로 이어지면서 문집 3종과 유학서 5종, 도합 8종을 간행한 것이다. 이는 서당간본의 4割을 차지하는 수치로 서당간본에서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간행시기로는 15세기에 1종, 16세기에 1종, 17세기에 1종, 18세기에 1종, 19세기에 10종, 20세기초에 6종 간행하였다. 판종으로는 목판본 13종, 목활자본 7종인데, 문집은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고루 활용되었으나, 유가서적은 목판으로만 간행되었고, 족보는 모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전래되고 있는 서당간본이 대개 조선말기의 서적이어서 그 책판이 전래되는 것도 있다. 20종 가운데 8종이 전래되고 있는데, 문집 2종, 역사 2종, 유학서 4종이다. 6종은 지금 安東의 韓國國學振興院에 수장되어 있고, 2종은 後孫家에 수장되어 있다 「淸州慶氏族譜」를 제외하고는 목활자본은 모두 고종년간 간본이다.

이외에도 서당에서 간행한 서적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서적은 간행자와 간행년도가 명기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서당간본도 그 예외가 아니었을 터 서당간본으로 확인된 것은 일부라고 볼 수 있다.

6. 朝鮮時代 書堂의 書籍 收藏

書堂은 수준이 높지 않고 규모도 작은 교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서적을 수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적을 수장하였다. 선초까지는 家塾의 형태였으므로 훈장 개인장서를 학동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초반까지는 官權과 결합된 書堂이었으나 문고설립까지의 지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同族部落에서 血緣爲主의 書堂을 설립하고 享祀機能을 수행한 시기의 문고는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서적의 수장은 경상도 義城 梧桐山 남쪽에 梧溪書堂을 세운 任必大의 書堂節目과 報恩의 濯溪

金相進의 家塾節目을 통해 알 수 있다.

任必大(1709-1773)는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인 義城 龜蓮에서 강학에 힘쓴 남인계 사인이다. 그의 『剛窩先生文集』에는 12조의 書堂節目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적의 購入과 管理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즉 돈이나 곡식으로 이식을 남기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은 아니지만 書堂의 규모가 아직 초창기이므로 곡해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經理는 반드시 해마다 이식을 남겨서 書冊과 田畝를 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書堂의 서책은 書堂 문 밖으로 가져갈 수 없고, 부득이 書堂 밖으로의 借覽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置簿에 기록해 두었다가 居接이나 引受引繼할 때는 미리 推尋할 것, 학동은 서적을 손상시키지 말고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³⁾ 이를 미루어 서적을 구비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書堂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金相進(1736-1811)의 家塾은 김해김씨 일문의 同族部落인 報恩 濯谷里에 있었다. 이들 가문은 沙溪 金長生, 櫟泉 宋明欽, 溇湖 金元行 등과 師承關係에 있는 老論系列이었다. 金相進은 주자학연구에 일생을 바친 전형적인 선비였다. 그의 문집 『濯溪集』에는 정조 23(1799)년에 작성된 門約 宗盟 家塾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宗盟에는 五事, 六事, 三事を 규정하고 있다. 五事는 安老, 教幼, 重宗, 睦族, 嚴內外이고, 六事는 力農桑, 尙文學, 謹租稅, 誠祭祀, 敬賓客, 厚鄉里이고, 三事는 建家塾, 置義莊, 立墨莊 이다.⁶⁴⁾

23조의 家塾節目에는 家塾의 設置, 維持에 관한 조항, 宗族敦睦 및 諸般事に 관한 조항, 鄉風振作에 관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宋代 文正公 范仲淹의 고사에 의거하여 800石 이내의 義莊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義莊의 資產은 모두 書堂의 경비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문중의 敬長, 吉凶事, 接賓客, 窮家支援 등에 사용한 것이었다. 또 李公擇의 山房의 고사에 의거하여 墨莊을

63) 任必大, 『剛窩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권4, 書堂節目, 張17.

一. 書堂書冊不出堂外而或有不得已許借者則必置簿抄錄居接及傳與時必前期推尋且勿令蒙學損汙事.

一. 錢穀殖利雖非君子所屑者而書堂規模纔草創亦不可不曲意經理須每年隨便取殖以買書冊及田土事.

64) 金相進著, 李元肅編, 濯溪集, 後期木活字本, 純祖 28(1828), 卷7, 張40, 雜著, 宗盟.

설치하고 서적을 비치하여 열람시킬 것도 규정하였다. 또한 서적을 가지고 서당 문 밖을 나가지 못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산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三經, 四書, 通史 등의 서적은 별도로 복본을 두어 사람들에게 빌려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일은 有司를 선발하여 주관하게 하였다. 田畵과 書冊을 사들일 때는 優價로 할 것과 有買無賣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전답이나 서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매매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⁶⁵⁾ 墨莊은 수장된 서적이 1,000권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이런 규모는 촌락단위로는 대단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柳台佐(1763-1837)는 柳成龍의 6대손으로 순조년간 대사간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문집 『鶴棲先生文集』에는 安邊鶴浦社養士契節目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柳台佐가 순조 7(1807)년 安邊府使로 있을 때 鶴浦社의 養士契가 결성되었는데 그 절목의 서문을 지었던 것이다. 그 서문에서 鶴浦社는 궁벽한 곳에 있어 서적을 쓸어낸 듯 없어 자제의 교도에 어려움이 있음과 社中の 유생이 각각 약간의 물자로 利殖을 남겨 經典과 雜記를 100여권 수장하게 되면 장학의 책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⁶⁶⁾ 이들이 비치하고자 한 서적은 100여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書堂에서 학동이 필요한 서적일 것으로 짐작된다. 鶴浦社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향교는 아닐 것이므로 지방의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尙州의 霞谷書堂은 목사 申潛(1491-1554)이 임기(1551秋-1554.12) 중에 霞谷書堂을 위시하여 18곳의 서당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서당이다. 이후 이 서당은 주변정세에 따라 浮沈이 있었는데, 철종 5(1854)년에 작성된 『堂案』에는 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절목은 서당의 학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당재건을 위해 모금할 때 작성한 것이다. 그 9조에 서당의 재정이 다소 자리가 잡히면 대출해줄 책을 준비해서 후진의 학업을 권장하되, 절대로 堂員이 아닌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⁶⁷⁾을 규정하고 있다.

65) 金相進著, 李元肅編, 濯溪集, 後期木活字本, 純祖 28(1828), 卷7, 張40-42, 雜著 家塾節目

66)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9, 安邊鶴浦社養士契節目序, 張 25-26.

67) 蔡光植著, “霞谷書堂事蹟考,” 『尙州文化研究』 제13집(2003. 2), 149-150.

앞의 기록을 통해 18세기에 書院의 설립이 어렵게 되자 문중에서 書堂을 설립하고 書堂에서 자제를 교육하고 이를 위해 서적을 수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7. 結 言

교육의 장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은 교재와 참고도서를 구비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중고등교육기관인 成均館, 鄉校, 書院 등 상위의 교육기관에는 정책적으로 國家 또는 地方官廳의 支援을 받았고 또한 부분적이지만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書堂에서 서적을 수장하거나 간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서당에서의 서적 간행과 수장에 대해 고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간행된 서적은 모두 20종이 확인되었다. 주제는 문집 8종, 병서 1종, 역사서 2종, 유학서 5종, 족보 4종으로 문집, 유학서, 족보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지역으로는 永川 1종, 寧海 1종, 靑松 8종, 春川 1종, 高靈 1종, 尙州 2종, 延豐 1종, 巨昌 1종, 沃川 1종, 淸道 1종, 미상 2종이다. 경상도 15종, 강원도 1종, 충청도 2종으로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2종의 역사서적은 조선시대에는 尙州 관할지역에서 판각되었으나 지금은 聞慶에 속한다. 서당간본 가운데 괄목할만한 점은 靑松의 馬坪書堂이 梟江書堂으로 이어지면서 문집 3종과 유학서 5종, 도합 8종을 간행한 것이다. 이는 서당간본의 4割을 차지하는 수치로 서당간본에서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간행시기로는 15세기에 1종, 16세기에 1종, 17세기에 1종, 18세기에 1종, 19세기에 10종, 20세기 초에 6종 간행되었다. 판종으로는 목판본 13종, 목활자본 7종인데, 문집은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고루 활용되었으나, 유가서적은 목판으로만 간행되었고, 족보는 모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전래되고 있는 서당간본이 대개 조선말기의 서적이어서 그 책판이 전래되는 것도 있다. 20종 가운데 8종이 전래되고 있는데, 문집 2종, 역사 2종, 유학서 4종이다. 6종은 지금 韓國國學振興院에

수장되어 있고, 2종은 後孫家에 수장되어 있다. 『淸州慶氏族譜』를 제외하고는 목활자본은 모두 고종년간 간본이다.

18세기 전반까지는 훈장의 개인장서를 학동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同族部落에서 血緣爲主의 書堂을 설립하고 享祀機能을 수행한 시기의 문고는 확인할 수 있다. 향리인 義城 龜蓮에서 강학에 힘쓴 任必大의 가문, 報恩 濯谷里에서 강학에 힘쓴 金相進의 가문과 순조 7(1807)년 安邊府에 설립된 安邊鶴浦社, 尙州의 霞谷書堂에는 소규모의 문고가 있었다. 이들 서당의 간본과 문고는 書院의 설립이 어렵게 되자 문중에서 書堂을 설립하고 書堂에서 자제를 교육하고 이를 위해 서적을 수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인된 기록은 당시 서당간본이나 서당문고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權濂. 「厚庵集」 木版本. 靑松: 日新堂, 1934.
- 權五石. “書堂教材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933-988.
- 金相進著. 李元肅編, 濯溪集. 後期木活字本. 純祖 28(1828).
- 朴連鎬. “조선시대의 敎育, 科擧에 관한 研究의 현황과 과제.” 『朝鮮時代研究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徐錫台. 「李宗熙編」 大邱邑誌. (1924).
- 徐錫華. 「淸石文集」 石版本. (19-).
- 徐孝源. 「石澗集」 木版本. [刊年未詳].
- 「紹修書院雜錄」 影印本. 榮州: 榮州市, 2005.
- 「紹修書院冊錄」 寫本. [英祖 38(11762)-正祖 9(1785)].
- 宋楊燮. “書堂에 관한 歷史的 考察.” 『한국교육의 성찰』(1991). 216-231.
- 申相祺. 「靑松郡誌」 靑松: 靑松郡誌出版所, 1938.
-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 李萬烈, “17·1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 認識.” 『韓國史研究』 10(1974. 4). 97-124.
- 李秉然, “麗末鮮初의 科業教育; 書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67(1975). 45-70.
- 李鍾珏, 皮貞晚, 趙南國, “江原道 書堂教育에 관한 研究.” 『江原文化研究』 제13집(1994). 3-24.
- 任必大, 『剛窩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 丁淳佑, “17世紀 書堂經營과 鄉村支配層의 動向.” 『교육이론』 제 권 제 호 서울대, 1986). 129-151.
- 丁淳佑, “18世紀 書堂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丁淳佑, “19세기 書堂設立과 鄉村社會의 動向.” 『한국사회와 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51-190.
- 丁淳佑, “조선전기 영남지역 평민층에 대한 교화와 교육.” 『정신문화연구』 76호 (1999. 가을). 101-128.
- 丁淳佑, “초기 퇴계학파의 書堂 운영.” 『정신문화연구』 85호 (2001. 겨울). 55-74.
- 菜光植, “霞谷書堂事蹟考.” 『尙州文化研究』 제13집(2003. 2). 143-160.
- 川沙 金宗德의 文學과 思想.(東方漢文學會, 2002. 4. 13 發表要旨).
- 『韓國의 冊版目錄』 3책.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韓東一, “朝鮮時代 鄉校와 書堂.” 『韓國教育學의 探索』 (서울: 高麗苑, 1985).
- 洪汝河, 『木齋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